

‘십자가, 세상의 소망’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4월 11~15일 오전 6시 모든 캠퍼스 본당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한끼 이상 금식기도, 십자가 목걸이

2022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열린다. ‘십자가, 세상의 소망’을 주제로 4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6시에 진행된다.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한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 세상의 소망’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생명의 삶> 본문을 이용해서 설교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준비한 특순도 다채롭다. 4월 11일(월) 버금미선, 4월 12일(화) 주사랑찬양사역팀, 4월 13일(수) 주기쁨찬양사역팀, 4월 14일(목) 주의빛찬양사역팀, 4월 15일(금) 주찬양찬양사역팀이 특순을 선보인다.

요일별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의 죄 회개, 화요일 나라의 지도자, 수요일 코로나19 종식과 회복, 목요일 교회, 금요일 세계 선교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한다.

고난주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매일 한끼 이상 금식하고, 코로나19 종식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도한다. 불필요한 미디어(TV, 인터넷, 영화, 게임 등) 사용을 자제하는 미디어 금식도 권장한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올 때는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2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 세상의 소망

강사 : 이재훈 목사

4.11(월) - 4.15(금) 오전 6시

온누리교회 전캠퍼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생명’

생명, 동물, 식물을 지키는 작은 실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창 1:24).

이번 주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주제는 생명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묵상하고 일상에서 생명, 동물, 식물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한다. 첫 번째 실천은 4월 10일까지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이어지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실천은 입양, 가정위탁, 생물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다. 기독교 OTT ‘풍당’에 업로드된 ‘마음으로 낳은 아이’, ‘올바로 알면 더 아름다운 입양’을 시청하면 된다. 생물에 관한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생물다양성과 사라진 친구들’을 시청하면 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터로까지 확장하기 때문이다. 이자영 성도(강남B공동체)는 카페에서, 최성훈 간사(대전온누리교회)는 교회에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실천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참여하는 ‘인증사진’과 ‘한 줄 소감’을 카카오톡채널 ‘창조질서회복’ 또는 문자메시지(010-6442-0191)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게재되고,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혈액 수급 비상, 더 많은 관심 필요!

생명나눔의 기적 4월 17일까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로 혈액 수급 문제 해결을 돕는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현재까지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16개 교회와 단체에서 3,383명이 헌혈했다(4월 1일 기준). 온누리교회 성도 783명도 헌혈의 집, 헌혈카페, 헌혈 버스 등지에서 헌혈했다.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찾으면 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관련기사 6면>.

문의: 02-570-7523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CGNTV 개국 17주년 감사예배 드려

CGNTV가 개국 17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월 28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CGNTV 개국 17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 정상건 장로 등 CGNTV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17년 CGNTV의 사역이 확장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만 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는 “CGNTV를 사랑해주시는 4만여 명의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CGNTV는 개국 17주년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더 위대한 사역>도 제작했다. <더 위대한 사역>은 오랜 준비 끝에 캄보디아로 떠났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3년 전 갑작스레 소천한故 최원일 선교사와 그의 흔적을 찾아 나선 아내 조유진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

다. 1부 4월 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2부 4월 1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방영된다.

한편 CGNTV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는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랑으로 함께’를 주제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다. 4월 10일(일)까지 지정 모금 계좌(하나은행 573-910010-60104 예금주 (재)온누리선교재단)로 후원자 이름을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함께 입력하면 된다.

문의: 02-769-2243

/ 김영선 기자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Pray for Ukraine’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요청



고난받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지난 3주 동안에 걸쳐 반인륜적이고 국제법에서 금지한 전범 행위 및 잔악 행위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군이 발사한 600여 개 이상의 미사일 폭탄은 우크라이나 국토를 초토화했다. 민간인을 향한 살상행위는 3천여 명을 넘어섰고, 아동 살해도 12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수많은 어린이가 부모와 헤어져 피난길에 오르고 있으며, 현재 피난민들만 300만 명을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러시아의 공세가 지속될 경우 전쟁 난민이 최대 천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할 것도 없이 전쟁의 최일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러시아 군인들의 사망자는 부지기수다.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평범한 시민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유와 미주를 추구하며, 인권

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은 끝없이 드넓은 평원과 드높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온순한 양들처럼 살아온 사람들이다. 대륙과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에 낀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은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들은 복음 및 개신교에 대하여 가장 열려있는 민족이 기도 하다. 이 땅은 복음의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수많은 사역자가 일어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힘차게 전진하는 중이었다. 더 불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팽박당하고 추방당한 선교사들에게 따뜻한 피난처를 제공해주었고, 40여 명의 추방당한 선교사들의 새로운 사역지가 되어주었다.

이들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1994년 세계 3대 핵 강대국의 위상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선언하였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보장해주기로 합의 각서에 서명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다. 그런 러시아로부터 2014년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 및 돈바스 지역을 유린당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불가피하게 나토 동맹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구실삼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토를 피로 물들이고 있다. 그들은 민간인 거주 지역 및 병원, 유치원, 그리고 기본 인프라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핵무기 운운하며 서방의 자유민주진영과 인류의 안전을 겁박하는 중이다. 세계는 지금 구소련 공산주의의 잔재를 포기하지 않은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의 세력으로부터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인 전쟁을 넘어서서 악마적인 어둠의 세력과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한 빛의 세력 간의 가치 전쟁으로 변화, 승화되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생명을 추구하는 우

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죽음의 계곡에서 결사 항전하며 호소 중이다. 우리 역시 그곳의 기독교인들을 도우며 연대해 어둠의 세력을 함께 대적해야 할 때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인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기도와 사랑의 견고한 끈으로 함께 악의 세력에 대항해야 할 때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한국을 신앙적, 경제적으로 본받아야 할 모델 국가로 여긴다. 고난과 통곡이 가득한 바로 이때, 한국 교회 및 성도들이 고난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함께한다면 그들은 평생 한국의 교회들을 좋은 친구로 기억하며 기도할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서 유럽과 구공산권 복음화, 그리고 중동권 복음화로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인류를 모독하며 인류의 양심과 정의를 시험하는 이 악한 전쟁행위가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손잡고 나가자.

/ 김평원 선교사(우크라이나 한인선교회 전쟁위원회 위원장)

* 이 글은 지난 3월 21일 한국선교KMQ에서 발한 <PRAY for UKRAINE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요청> 책자에 실린 글을 전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후원을 위한 통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하나은행 174-910024-87105
(예금주: 우크라이나대사관)
기아대책: 02-544-9544
대한적십자사: 1577-8179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제목〉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금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1.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도록,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하소서.

2. 지도자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수습할 수 있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주시고, 지하철 방공호와 교회 지하실에 대피해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4. 난민들을 위해: 삶의 기반을 두고 급히 주변 나라로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지켜주소서.

5.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 우크라이나 안의 모든 교회와 가정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

회 지도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전쟁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6.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사들이 다시 우크라이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피난 중에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현재 사역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비전과 협력이 잘 연결되게 하소서.

7. 회복과 부흥을 바라보며: 전쟁 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재건을 통한 일상생활의 회복과 우크라이나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연결되게 하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세 종류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방인, 외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추종자로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친구로 이끄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방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추종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좌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출 33:1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러한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뤄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약 2:23).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친구’로 대해 주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좋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 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요 15:13-15).

“우리를 친구로 초청합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좋은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십니다. 친구, 우정으로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청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면만 강조해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지면 자신의 지혜와 지식, 경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하나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정입니다. 하나님과 사귄, 관계, 교통,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합당하면 들어 주시고, 계획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뜻을 함께 이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으로 계획을 열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8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정욕은 정결함을 거슬러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이끅니다. 정욕은 관계 속에서 싸움과 다툼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기도할 때조차 정욕으로 구하기에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떼어놓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동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친구, 세상의 친구로서 사탄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영향력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능력임을 모르게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본 경험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로서의 우정, 친구로서의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5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는 성령님이 시기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의 권세와 통치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친구들이 가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세상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세상과 멀어지도록 양심을 일깨워서 괴롭힙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쓰디쓴 고통이 되게 합니다. 세상과의 우정을 끊어 놓으심으로 불편하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뱀과 우리를 원수 되게 하셨습니다. 뱀으로 대표되는 사탄과 이 세상 질서와 원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산을 거닐며 대화했던 태초의 인간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를 끊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들이 모두 여자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하나님의 신부로 불렸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명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영어 성경에서는 ‘adulterous people’이라고 번역합니다. 성을 빼고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의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교회는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고, 정결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가면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간음하는 이들’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이들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이끄시고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시기하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하려고 할 때, 세상과 친구 관계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시기하시고, 불편해하시는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욕에 이끌려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인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인지 두 갈래에 놓여 있습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꾀할 것입니다”(6-7절).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의 끔찍한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입니다. 짐승은 자기가 짐승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자신이 짐승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겸손이란 교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죄 가운데 엄청난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사탄이 그 교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하고, 세상의 친구가 되게 해서 자기와 환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친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까? 교만이 자기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면에 계속〉

자녀양육 Q&A 코로나19와 자녀 양육

코로나19 시대, 네 가지 자녀 양육 방법!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 공동체,
서빙고 상담실 담당)

코로나19 재난이 장기화하면서 일상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행으로 외출이 줄고, 가족들이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여러 통계에서 코로나19 이후 부부 혹은 부모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전보다 훨씬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부부 갈등과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했음이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위기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남이 부족해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잔소리에 많이 노출되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 셋째, 엄마의 경우 종일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세끼 식사와 학습을 챙기면서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시간이 훨씬 늘었다. 직장맘의 경우에는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가정일과 회사 일을 이중으로 신경써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때문인지 최근 설거지 부담을 덜어주는 식기세척기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고 한다. 넷째, 아빠의 경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녀교육 또는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위해 참여했던 사적모임이나 회식 자리가 줄어드는 장점도 경험하고 있다. 다섯째, 사교육 부담이 늘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지만, 오랜만에 가정에서 아빠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시대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을까? 특히 크리스천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19 시대 자녀 양육을 해야

할까? 네 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첫째, 피할 수 없다면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코로나19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갑자기 늘어난 시간으로 인해서 경계선이 무너지고 갈등 가능성이 커졌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 및 예절을 배울 필요가 있다. 부모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가족 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정기적인 가족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전에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기가 쉽지 않았다. 엄마가 평소에 식사를 담당했다면 주말에는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 정기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와 친밀감을

경험하고, 엄마도 식사 준비로부터 여유를 갖게 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성도는 주말마다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먹인다고 한다. 아이들

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아빠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맛본다고 한다.

셋째, 가족들이 함께 영적 모임을 하는 것이다. 가정예배나 성경 읽기 혹은 성경 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해보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불안한 감정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된다.

넷째,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자.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어렵다. 소비생활에 집중하기보다 경험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자. 예를 들면 가족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다. 먼 거리가 아니어도 주변의 기독교 유적지나 자녀들의 진로를 위한 대학교를 탐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은 분명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그 상황을 잘 활용하면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응원한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받아들이고, 정기적인
가족 규칙을 만들고, 가족이 함께 영적모임을 하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우리들 작품

말씀 먹고 마시는 차세대의 ‘사순절 성경쓰기’

성경쓰기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



“저는 사순절 성경쓰기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쓸지 기대되고, 쓸 때마다 기뻐요.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제일 많이 써서 기억에 남아요. 마태복음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신 이야기에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신기하고 좋았어요.

저는 성경쓰기로 한글 공부를 했어요. 일곱 살 때 차세대에서 성경쓰기 교재를 주셔서 엄마랑 그 책으로 같이 공부했어요. 원래 한글을 잘 못 읽고 잘 못 썼는데 이제는 읽고 쓸 수 있어요. 지금은 동생이랑 같이 성경암송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글씨가 많아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손도 아프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쓰면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 최시은 학생(서빙고 꿈땅, 초등 2학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궁금해요. 제자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기적을 행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얼마나

아프셨을지 슬프고 죄송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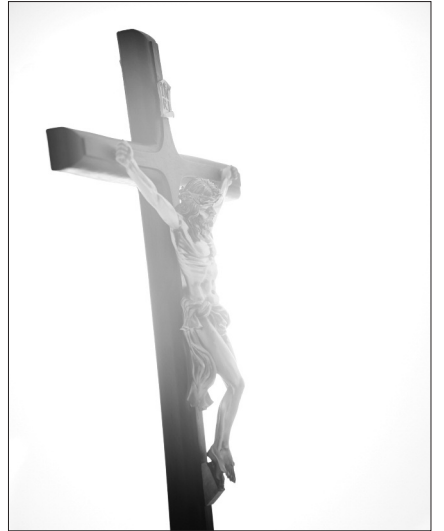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도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쓰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알게 되고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처럼 산책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있어요.

성경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더 잘 알 수 있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랑 예수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 송유하 학생(서빙고 꿈땅, 초등 2학년)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저학년용
3월 28일 본문(누가복음 24장 6~12절)



1.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까?

2.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확인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3.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나요?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8.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터에서도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이자영 성도와 최성훈 간사의 아주 특별한 실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이 3월 2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16일과 17일 부활주일까지 이어진다. 창조질서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캠페인이다. 3월 다섯째 주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창 1:14)는 말씀을 묵상하고 ‘제철 과일·채소 먹기’, ‘실내온도 20도 유지하기’, ‘봄꽃 감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실천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참여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참 맛있다. 일터에서도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을 이어나가는 성도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이자영 성도(강남B공동체)와 최성훈 간사(대전온누리교회)다. 이자영 성도는 카페에서, 최성훈 간사는 교회에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실천을 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자영 성도와 최성훈 간사가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을 일터로 확장시킨 이유는 나부터 변하면 이웃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이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리유저블컵’ 사용하는 ‘R 카페’ 이자영 성도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를 꼽으라면 단연 카페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들도 일회용품 사용이 마냥 편리하고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려 해도 비용상승을 감수해야 하고, 손님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쉽지 않다. 온누리교회 커피숍에서도 텀블러를 사용하는 손님들이 드문데 일반 카페는 오죽할까? 그런데 광진구 중곡동에 산책길에서 ‘R 카페’를 운영하는 이자영 성도(강남B공동체)는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R 카페’는 제가 두 번째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첫 번째 카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일회용 컵을 수백 잔씩 사용했습니다. 텀블러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자영 성도가 ‘R 카페’ 오픈을 준비하는데 매마침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이 시작됐다. 일회용 컵과 텀블러의 대안을 찾던 이자영 성도 눈에 들어온 것이 있다. ‘리유저블컵’



▲ 최성훈 간사(대전온누리교회)는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터와 이웃들에게 확장시키고 있다.
◀ 이자영 성도(강남B공동체)는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R 카페’에서 리유저블 컵을 도입했다.

이다. 텀블러보다 휴대와 보관이 쉽고, 가격도 약 400원으로 큰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다국적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서 리유저블컵을 론칭하면서 선풍적인 반응을 끌기도 했었다.

“리유저블컵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친환경 컵입니다. 저희 R 카페에서는 400원에 판매하고 무상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커피 한 잔 파는데 400원짜리를 그냥 드리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신통치 않아서인지, 아직 대중화가 안 됐는지 반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음료를 자주 주문하는 한 사무실에서 꾸준히 리유저블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무실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 많아서 마음에 걸렸는데 리유저블컵을 사용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이자영 성도는 리유저블컵을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방법이 많으며 몇 가지 추천했다.

“저는 고체 세제와 고체 빨랫비누를 쓰고 있습니다. 고체 세제를 액체 세제로 만드는데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크다고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엄청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 물이 뜨거워질 때까지 흘려보내는 물이 아까워서 그 물을 받아 청소와 변기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니 불편하지 않습니다. 물라서, 그냥 하던 게 편해서 아직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시도해볼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고 많이 행복할 것입니다.”

일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최성훈 간사

간사들은 보통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에 출근한다. 그런데 종종 교회 냉난방기가 켜져 있거나 전등이 켜져 있을 때가 있다. 시설담당자가 퇴근한 사이 교회 시설을 사용한 성도들이 깜빡 잊고 끄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온누리교회에서 시설과 예배를 담당하는 최성훈 간사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일터와 환경을 더 내 몸같이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전기’가 뇌리에 꽂혔습니다. 제 업무에 더 큰 책임감이 생겼고, 저부터 일터(교회)를 더 내 몸같이 사랑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최성훈 간사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실천은 월요일 출근이다. 월요일에 교회에 한번 들러 낭비되고 있는 전기가 없는지, 시설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돌아봤다. 그 실천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간사 일을 막 시작했을 때는 종종 월요일에도 교회에 들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간사의 시선으로 보는 일터(교회)에서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을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면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유튜브 채널(타이니훈TV)에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실천을 확장하기 위한 최성훈 간사의 두 번째 노력은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자가격리하는 이웃들에게 지역농산물을 배달하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대전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지역농산물을 찾았습니다. 썩것과 오이를 구매해서 지인의 집 문고리에 걸어주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대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판매처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자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천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우리 모두 일터와 환경을 내 몸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줄 소감

매주 정해진 주제가 있었지만,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양치 시 물컵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 담은 물만 사용하는 습관

- 물을 틀 때 확 트는 것이 아닌 약하게 트는 습관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물을 낭비하고 있었는지 화가 났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걷는 습관과 카페를 갈 때 텀블러를 챙기려는 노력이 모여 습관이 되어감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새벽예배 때 따뜻한 물을 텀블러 담아 마시니 파스함이 오래가서 좋더라고요.

/ 이라 성도

이면지를 사용하여 마치 룻이 남은 이삭을

가지고 나오미를 회복시키셨 듯이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박영환 선교사

옷장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 사용하지 못했던 손수건을 꺼내어 수업 중에 사용해봅니다. 일회용 티슈 줄이기로 저는 오늘도 하나님 계획안에 있습니다.

/ 이호진 성도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에 동참하면서 한 시간 동안 불끈 김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김에 주변을 봤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빛의 천국 이더라고요. 더 꺼야 애써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 박영미 성도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손수민 성도에게 지정 헌혈 해주세요!”

양천공동체 손수민 성도를 위한 생명 나눔

혈액 수급난이 심각하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헌혈하는 사람들이 더 줄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 관리본부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적혈구제제 보유 현황이 3.1일분이다. 적정 혈액 보유량 5일분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소판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의 지혈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농축혈소판 보유 현황은 더 심각하다. 1.3일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성도들의 더 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심각한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고 있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해서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현재까지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16개 교회와 단체에서 3,383명이 헌혈했다(4월 1일 기준).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A형 혈액, 성인 남성 혈소판 지정 헌혈자를 구하는 손수민, 박소희 성도(양천공동체) 가정.

“자매님, 내가 한 살만 어렸으면 좋을 텐데... 미안합니다.”

박소희 성도(양천공동체)가 이 전화를 받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박소희 성도 가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박소희 성도의 남편 손수민 성도(양천공동체)가 얼마 전 골수이형성증후군(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에 이상이 생겨 혈액세포가 줄어들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 판정을 받았다. 10년 전 진단받은 재생불량성빈혈(혈액을 생산하는 뼈 내부에 있는 조혈모세포가 점차 고갈되며 골수 기능 부전이 야기되어 빈혈,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등을 일으키는 질환)에서 유래된 혈액 질환이다. 골수이식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인데 수술 전후로 지속적인 혈소판 수혈이 필요하다.

손수민 성도는 4월 1일 골수이식 수술을 앞두고 입원했다. 매일 항암치료와 혈청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치료들이 혈소판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 혈소판을 유지하려고 하루에 두 팩씩 수혈을 받고 있다.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수술 전후로 계속 혈소판 수혈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으로 혈소판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 꽤 까다로운 헌혈 조건까지 있어서 지정 헌혈자를 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고민 끝에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병원에서 지정 헌혈자를 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혈소판 헌혈은 전혈 헌혈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지정 헌혈자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또 어려움을 드리지는 아닌지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다 남편의 소식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손수민 형제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양천공동체 성도들이 바빠졌다. 너나 할 거 없이 지정 헌혈 신청을 위한 사전문진을 했다. 성별, 나이 제한, 복용 중인 약, 코로나19 확진

등 여러 이유로 지정 헌혈을 할 수 없는 성도들은 손수민 형제의 소식을 주변에 알리고 함께 기도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됐다.

“공동체에서 연락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로와 응원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많이 받았고요. 말로 다 표현 못 할 정도로 감사하고 큰 힘이 됐습니다. 한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한 살 차이로 나이 제한에 걸려 헌혈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병원에 한 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살만 더 어렸으면 가능했을 텐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정 헌혈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를 떠나서 저희에게 마음 써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는 양천공동체 식구들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사실 손수민, 박소희 성도 가정은 10년째 양천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양천공동체 지체들은 10년 전 손수민 형제가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

“저희 가정은 양천공동체 식구들의 중보기도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양천공동체의 사랑 덕분에 저희 가정이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년 전 남편이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은 날부터 4년 전 구강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던 날, 이번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날까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양천공동체 지체들이 기도로 사랑을 나눠주시고, 여러 도움으로 남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양천공동체 성도들이 이번에도 손수민, 박소희 성도 가정에 생명을 나눈다. 양천공동체 성도 중에서 혈소판 지정 헌혈자가 9명 모집됐다. 혈소판 헌혈은 혈액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5일)이 짧아서 병원에서 헌혈 날짜를 정해준다. 양천공동체 성도들은 필요한 날에 건강한 혈액을 전달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하고 기도하며 헌혈 날만 기다리고 있다.

아직 도움이 더 필요하다. 골수 이식수술 이후 지속적인 혈소판 수혈을 해야 해서 2-3일 간격으로 한 명씩 손수민 형제 앞으로 혈소판 지정 헌혈을 해주어야 한다. 박소희 성도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제목을 나눴다.

“중요한 교회 소식이 실려야 하는 온누리신문 지면을 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 주님 보혈의 은혜만

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심스레 저희 상황을 전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남편의 혈액암이 완치되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손수민 성도 지정 헌혈 기준 및 신청 방법

1. 기본 기준
A형 혈액, 성인 남성, 코로나 완치 판정받은 지 최소 1달 이상(AB형 혈액도 필요: 골수 이식 수술 이후 기증자의 혈액형으로 바뀜)
2. 혈소판 헌혈 가능 여부 확인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www.bloodnet.or.kr)에서 사전 문진표 작성하고 헌혈 가능 여부 확인
3. 헌혈이 가능할 경우 박소희 성도(010-2987-9123)에게 연락
이름, 온누리교회 소속 공동체, 헌혈 가능한 요일 적어서 문자 보내기
4. 지정 헌혈 날짜 정해지면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에서 ‘혈소판 지정 헌혈’ 예약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헌혈해야 하나 고민하니 마침 버스가 여유 있어 어려운 곳에 잘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건강하니 이거라도... 내려놓음이 쉽지가 않은 하루하루지만 많은 분이 기도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 박종인 성도

· 생명나눔의 기적을 통해 정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작은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피로회복되었습니다.

/ 김선애 성도

· 일상의 헌혈이 소아암 아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 이진선 성도

· 수없이 많은 문진표의 모든 문항을 통과했습니다. 헌혈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며, 제게 주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 이희진 성도

· 작년 피로회복 프로젝트 때 처음으로 헌혈을 한 이후 어느덧 세 번째 헌혈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을 체감하고 있는데, 헌혈을 통하여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러한 나눔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윤원재 성도

· 가족 중 아플 때 수혈받은 적이 있었는데, 빛 같은 마음으로 헌혈했습니다.

/ 이경수 성도

· 오늘 저는 헌혈에 참여하였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기쁨 좋네요.

/ 범석훈 성도

· 주기적인 헌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행복을.

/ 김승택 성도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광고 기획, 브랜딩 기획, 컨셉 디자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권준 성도도 그 한 사람이다. 권준 성도에게 어떤 수식어가 어울릴지 한참 고민했다. 'LR Seoul' 이사,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iFDesign Awards'와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수상자, 세계 3대 광고제 'New York Festivals' 심사위원 등 권준 성도를 표현할 수식어가 참 많다. 그런데 이 수식어로 권준 성도를 표현하면 무엇인가 한참 부족했다. 맞다! 한동대학교 출신 권준 성도에게는 'World Changer'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것 같다. 아프리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드림링', '썬큐베이터', '리프마스크' 등을 기획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World Changer 권준 성도의 이야기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능력 80% 일, 능력 20% 사회를 위해!

세상을 바꾸는(World Changer) 권준 성도와 동료들

생리대가 없는 아프리카 여성들을 위한 생리용품 '드림링', 큰 일교차로 목숨을 잃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썬큐베이터', 마스크가 없어서 질병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리프 마스크'는 권준 성도와 그의 동료들이 만들어 낸 대표적인 컨셉 디자인(제품 제작 전 단계)이다. 권준 성도는 '드림링'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iFDesign Awards'와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에서 '소셜 임팩트 부문' 금상을 받았다. 이 수상 이력만으로도 권준 성도를 소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 어떤 경력과 이력보다 빛나는 게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삶 그 자체다.

담배와 주류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아프리카를 사랑으로 품다

권준 성도는 소셜 임팩트(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활동)로도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와 주류 분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며 주목할만한 캠페인도 만들었지만, 권준 성도의 마음은 하루도 편하지 않았다.

“제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사람들이 담배와 술을 더 즐기게 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매력적이게 포장해야 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는 일상이 연속이었습니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이 병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권준 성도의 부모 권용성 장로(경기A공동체)와 신용년 권사의 조언이 신앙과 삶의 괴리에서 고민하는 그를 일으켰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준아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겠니?’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조언을 계기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사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 주변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무엇이든 해보려고 모였습니다.”

동료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다. 권준 성도와 그의 동료들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

이 있었다. 아프리카다. 생리대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여학생들과 큰 일교차를 견디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다.

“팀원 중에 아프리카에서 살다 온 선교사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팀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가 ‘드림링’과 ‘썬큐베이터’가 탄생했습니다.”

드림링, 썬큐베이터, 리프마스크

아프리카 여성들의 인권이 매우 낮다. 성차별도 매우 심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도 제한적이다. 권준 성도와 팀원들은 아프리카 여성들의 인권이 낮은 여러 원인 중에서 ‘생리대’에 주목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학생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학업을 포기한다는데 그 말이 믿어집니까?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생리대를 살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끼니 때우기도 버거운데 생리대 1개가 한끼 식사 비용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미신적문화에서 피는 불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생리하는 여성들은 피하기도 합니다. 생리대를 구할 수 없고, 사람들이 피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여학생들은 한 달에 1주일은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등교하지 못하면 수업을 따라갈 수 없고 학업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아프리카 여성 인권이 낮아지는 악영향이 생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생각해진 것이 바로 ‘드림링’입니다.”

드림링은 생리컵(실리콘으로 만든 삽입형 생리대)을 아프리카 현실에 맞춰 탈바꿈한 생리대다. 권준 성도와 그의 동료들이 생리컵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링과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컵을 구분해서 기존 생리대가 가지고 있는 가격과 위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드림링은 생리주기 동안 생리컵의 약 1/10, 생리대의 약 1/20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썬큐베이터’는 아프리카에서 5세 이하 아동 5명 중에서 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더울 때 영상 45



권준 성도는 아프리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꿈을 꾸고 있다.

도, 추울 때 영상 10도 정도입니다. 단열이나 보온대책이 없는 아프리카 신생아들에게는 이 정도 일교차는 치명적입니다. 썬큐베이터는 그 이점처럼 태양열을 이용한 아기 요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품도 고장 나면 수리할 수 없어서 무조건 단순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썬큐베이터의 소재는 부드러운 소프트 폼으로 되어있고, 바닥 면에는 축열재가 들어있습니다. 낮에 햇볕으로 요람을 데우면 그 열이 밤새 신생아의 체온을 유지해 줍니다.”

‘리프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없거나 비위생적인 마스크를 사용해서 건강을 위협받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구상했다. 마스크 귀걸이에 달린 클립에 나뭇잎을 끼워 마스크처럼 이용하는 제품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마스크가 귀합니다. 그나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는 급조한 데다 위생적이지 못해서 세균이 번식하고, 착용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 나뭇잎 자체에 항 바이러스 물질이 있습니다. 구하기도 쉽고, 기능도 좋은 리프마스크는 코로나19 시대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권준 성도와 그의 동료들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컨셉디자인으로 그치는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 세상에 나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함께 제품을 만들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만약 권준 성도가 수상에만 의미를 뒀다면 이미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권준 성도와 그의 동료들은 직접 제품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잘 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서 브랜딩과 제품 생산까지 경험하려고 ‘LR Seoul’이라는 회사도 설립했습니다. 광고 기획, 브랜딩을 기반으로 한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회사입니다.”

“브랜드, 사용자, 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소셜 임팩트를 만드는 게 비전이자 꿈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무슨 일이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의: Joon.kwon@lrseoul.com

크리스천의 또 하나의 사명 '혐오사회에 사랑심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방법

서로 관심 가지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노력

갈등과 다툼, 분열이 만연하다. 그래서 오늘날을 가리켜 '혐오의 시대'라 하는 것 같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다. 혐오(嫌惡)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다른 세대와 성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모습의 이웃을 품지 못하고, 다른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나'를 잣대로 세우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경계 대상이 된다. 그 잣대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혐오 대상이다. 혐오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크리스천은 이 삭막한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한다. 이 지면에서는 '장애인 혐오', '아동(청소년) 혐오', '노인 혐오', '젠더 혐오', '자기 혐오'를 주제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크리스천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는 '장애인 혐오'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약속 장소로 가려고 탄 지하철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닫히지 않는 열차 문을 바라보며 웅성대던 시민들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그 순간 열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상황이 몹시 불편하다는 의미였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 시위를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 시위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오죽했으면 이럴까”라며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혀를 차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지하철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도를 넘는 것이다. 지하철 시위가 길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관한 기사와 영상에 혐오 댓글이 달리는 것은 기본이고, 시위대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발로 차는 사람, “전장연 사무실로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옳다는 게 결코 아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행동과 삶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시선이기에 때문이다.

이동권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누구나’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포함되지 못할 때가 많다. 비장애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출구 앞에 설치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금세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찾아 길을 헤매는 경우가 왕왕 있다.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지하철 283개 역사 중에서 22개(7.8%)나 된다. 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을 생각하면 꽤 높은 수치다.

지하철뿐만이 아니다. 비장애인들은 버스 한 번이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다.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출입구에 계단이 있는 일반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서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2019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도 입몰이 26.5%에 불과하다. 서울(53.9%)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저상버스 보급률이 30% 미만을 밀돈다. 비장애인들은 앱 클릭 한 번이면 금세 잡을 수 있는 택시도 장애인들은 며칠 전부터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누리는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한 번만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박철웅 목사(사랑부 담당)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두고 장애인들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데 얼마나 큰 불편이 있는지 장애인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함께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혐오에서 벗어나기

장애인 혐오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쌓여 일상이 되었다. 속담만 봐도 장애인을 혐오하는 표현이 정말 많다. “귀머거리 들으나 마나”, “장님이 넘어지면 지팡이 나뻐다 한다”, “문둥이 죽이고 살인 당한다” 등 장애인의 인권이나 기능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너무 많다.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병어리장갑, 꿀 먹은 벼어리, 눈뜯장님, 절름발이식 외국어 교육 등과 같은 표현도 장애인 혐오적인 표현이다. ‘손모아장갑’이라는 병어리장갑의 대체어를 만들어 낸 것처럼 다양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장님, 귀머거리, 정신지체, 저능아 등과 같은 말 자체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어서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장님은 시각장애인, 귀머거리는 청각장애인, 정신지체는 지적장애인, 저능아는 발달장애인이란 표현으로 바뀌 사용하는 것이 옳다.

과도한 배려가 또 다른 차별을 낳기도 한다. 비장애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장애우’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友)’는 친구를 뜻하는 말로 장애인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이 말에도 알게 모르게 차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장애인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기보다 늘 보호나 배려를 받아야 할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은 장애

인이 타인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다.

‘정상인’이라는 표현도 지양해야 한다.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장애는 절대 비정상적이거나 결핍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작품일 뿐이다. 정상인이라는 표현 대신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가지 키워드 관심, 이해, 사랑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장애인에게 관심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노력이 다. 박철웅 목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는 관심, 이해, 사랑이 필요하다”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귀한 존재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이 상식적인 사실을 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

* 장애인 혐오 표현과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

1. 병어리 냉가슴, 눈 뜯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는 꼴, 절름발이식 외국어교육
- 쓰지 말아야 할 이유: 장애를 빗대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김
2. 장애를 앓고 있는
- 쓰지 말아야 할 이유: 장애를 질병으로 연상시킴
3.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치 않은 몸으로
- 쓰지 말아야 할 이유: 장애에 대한 동정 어린 시각이 담김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지금 직장에서 일한 지 7년 차 접어든 서른 중반 청년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내가 여기서 얼마나 일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에 대해 크게 불만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나 책임감, 보람 등이 안 느껴집니다. 직장에서의 내 소명은 과연 언제까지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직해야 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 3:14).

첫 출근날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며 감사하는 하루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직장은 기도응답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기도응답이라며 감사했던 직장이 시험과 고난의 장소로 바뀌어 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가?’라는 기도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그동안 직장이 변한 것은 아닐 텐데 왜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을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잘못 응답하신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걸까? 오늘은 직장과 부르심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종교적 직업을 성직(聖職)이라고 한다. 성직자는 누구일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처럼 교회에 소속되어 섬기는 분들을 말하는 것일까? 성직자를 직역하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하는 거라면 나는 성직자이다. 회사원도, 자영업자도, 의사도, 교사도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한다면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 출근한다면 성직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이 성직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과 회사일 중에 어떤 일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 일반적으로 교회 사역을 회사일보다 귀하게 여기실 거로 생각하는 데 큰 오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

해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 회사일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회 일을 하느냐 세상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비전이란 장래희망이 아니다. 비전이란 어떤 직업을 가질 계획이 아니다. 비전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 직업을 놓고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이직하지 않고,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이직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근거를 환경에서 많이 찾는다. 일하는 양보다 많은 월급을 주거나 직장 상사가 좋은 사람이면, 보장된 평생직장이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 하나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다고 여긴다.

지금 내가 가진 직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믿음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직업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면 고만해야 한다. 이직은 내 삶에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직도 하나님의 섭리다. 비전을 위한 또 다른 과정이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안에서 직장동료를 만나고, 시험이 있고, 관계갈등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직장에 크게 문제가 없고,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감사하기를 바란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란다. 직장에 서 일 잘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직장을 살리고, 동료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사모하기를 바란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준인 목사
(갈렙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The Story of Us’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는 결혼 15년 차 부부가 등장한다. 부부는 결혼 전 서로의 다른 점에 끌렸고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남편 벤의 직업은 소설가이고, 성격은 낙천적이고 유머가 많다. 아내 케이티는 벤과 반대 성향으로 완벽주의자였으며, 매사에 꼼꼼하다. 직업은 퍼즐 문제 출제자다. 많은 연인이 그러하듯 결혼 전 이들에게 서로 다른 점은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았다.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쳤다. 최소한 연애할 때는 그랬다. 하지만 많은 부부가 겪는 것처럼 결혼 후에 부부의 서로 다른 성향과 성격으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 벤은 아내 케이티가 너무 까다로운 여자로 여겨졌다. 케이티는 남편 벤이 부주의하고, 대책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로 잦은 충돌을 경험했다. 사랑이 식은 지 오래됐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갈등과 싸움이 갈수록 심해졌고, 사랑의 감정과 열기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벤과 케이티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12살 된 조시와 10살 된 에린이 여름 캠프에 갈 동안 별거하기로 한다. 아이들이 여름 캠프에서 돌아오는 날 아이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다. 하지만 별거하는 동안 부부는 자신과 결혼 생활, 가정을 마음 깊이 돌아보게 된다. 관계의 회복을 위한 회고와 반성을 한다. 부부의 연애,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깊은 울림을 경험한다.

아이들이 캠프에서 돌아오고 아이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 케이티가 차 밖에서 남편에게 설새 없이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결코 태어날 수 없는 값진 추억과 소망을 이야기한다. 부부가 만들어 왔던 추억이 부부와 가족의 역사가 되어 있었다. 케이티가 말한다. “이건 역사예요. 역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메소포타미아 고대 도시 위에는 다른 도시가 있지만 난 또 다른 도시를 짓긴 싫어요. 난 이 도시(결혼)가 좋아요.”

케이티는 부부가 결혼한 이후 경험했던 수많은 가족의 이야기들을 쏟아 놓는다. 지금의 결혼을 얻고 다른 누군가와 새로운 결혼 이야기를 써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의 내용이었다. 지금은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 위에 또 다른 결혼 이야기를 써 갈 수 있을 거라는 의미를 담아서 남편 벤에게 격한 마음을 쏟아 놓는다. 케이티가 말을 쏟아 놓을 때 이미 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부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부부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한다.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누가 뭐라 해도 신혼기일 것이다. 연애기까지 포함한다면 연애 시기와 신혼 시기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느끼는 친밀감과 행복감이 최고치에 이른다. 부부가 행복을 느끼는 신혼기 기준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보통 2-3년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짧게는 6개월 정도라고 보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3년 이상도 신혼기

에 버금가는 부부의 행복 기간으로 분류한다.

서로 사랑에 빠져서 바라만 봐도 좋은 신혼기는 애석하게도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 신혼기를 지나 다음 단계에 접어든다. 보통은 신혼기를 지난 부부는 낭만과 행복보다 서로 실망하고 갈등하고 다툼을 경험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을 할수록 신혼기에 경험했던 만족감과 행복감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부부는 결혼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결혼 생활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 현실을 살아가는 데 고통과 힘들, 삶의 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도 많지만, 행복과 반대되는 불편감과 고통을 느끼는 순간들도 적지 않다. 자신에 대한 실망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실망과 서로에 대한 불신, 분노, 해결하지 못한 갈등의 늪을 경험하기도 한다. 물론 많은 부부가 슬기롭게 결혼 슬럼프를 이겨내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다.

영화에 나온 벤과 케이티 부부도 그랬다. 이 부부의 사례는 신혼기를 지난 부부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결혼 전에 좋아서 끌렸던 장점들이 결혼 이후 단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단계는 좋은 감정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헌신과 수고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을 하는 것, 늦은 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야 하는 번거로운 일, 육아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과 헌신, 배우자의 단

점, 자신과 같지 않은 성향도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 등도 사랑의 큰 의미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지고 볶았던 모든 사건이 부부만의 역사가 된다. 가족의 역사가 된다. 가족의 역사, 부부의 역사가 모여서 부부의 결혼 역사, 사랑의 역사가 된다. 부부의 결혼 역사는 타인이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오롯이 부부가 써 내려가고 기억하는 것이다. 부부가 공유했던 결혼의 기억들이 많을수록, 긍정적일수록 결혼을 견고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때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들더라도 부부의 결혼 역사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돌아본다면 결혼을 견고하게 붙잡는 힘이 될 것이다. 벤과 케이티와 같이 결별을 결정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결혼 생활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이야기’와 더불어 결혼 생활에서 경험한 ‘부부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한다(말 2: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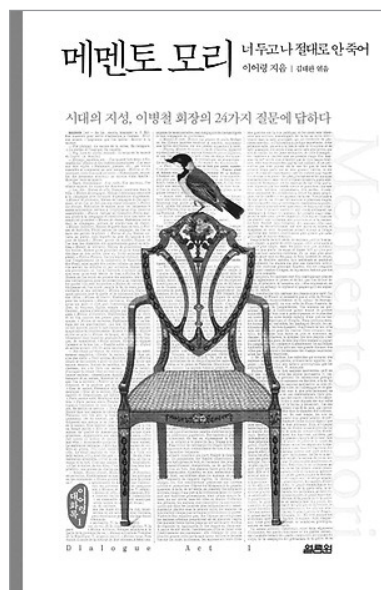
나눔: 힘들 때마다 꺼내서 기억하는 부부의 추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죽음을 준비하라!



〈메멘토 모리〉
이어령 저 | 열림원 | 15,000원

지난 3월 2일 이어령 선생님의 영결식이 있었다. 나는 애초부터 선생님의 신간을 무조건 사서 읽는 열혈팬이었고, 생전에 교회 영상을 찍기 위해 개인적으로 인터뷰한 적도 있었으며, 따님故 이민아 목사님의 하관식까지 가서 함께 예배드린 기억이 있어 선생님은 나에게 특별한 분이셨다. 그분의 부고를 접하고는 가슴이 철렁하고 대한민국의 국보가 사라진 것 같은 침울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나 이제 하늘나라로 갑니다!’라고 말하는 듯 환한 모습의 영정

사진으로 마지막까지 나를 환영해 주시니 눈물이 나왔다. 선생님의 영정사진 오른편에는 온누리교회에서 보낸 근조난이 자리하고 있었고, 자랑스러운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으로서 성경책도 펼쳐 놓고 계셨다.

문상하며 나는 어떻게 이분의 삶을 오랫동안 마음에 둘 수 있을까 생각하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출간된 유고작 〈메멘토 모리〉를 사서 읽기로 했다. 라틴어로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의 책을 당신께서 돌아가신 날 읽는 것은 참으로 뜻깊었다. 고인을 생각하며 줄 처가며 읽었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서실 것을 생각하고 쓰신 것 같았다.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시가 나온다.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의의 까칠한 촉감을 감출 수가 없다. 잠투정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해석은 탁월했다. 선생님은 책에서 “사람들은 죽기 싫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만 연구하는데 사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서양에서는 죽음에 대한 학문을 타나톨로지(타나토스가 그리스어로 죽음이란 뜻)라고 하는데 이름부터 잘못이다... 우리 말처럼 사생학(死生學), 즉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야 옳다. 삶과 죽음은 분리되지 않고 사는 것이 죽음의 시작이고 죽음이 진정한 삶의 출발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삶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의 만남에

서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인생은 만남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실제로 인생은 어머니의 모태, 즉 캄캄한 자궁에서 시작하였다가 세상에 나와 빛을 보게 되고, 다시 캄캄한 무덤으로 들어가면서 어둠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고 만다.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어둠은 천국의 강렬한 빛으로 인해 세상의 눈이 멀게 되는 어둠이라 사실은 빛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Womb to Tomb’ 모태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셨다. 실제로 사람은 깊은 죽음의 그림자를 봐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선생은 이렇게 표현하셨다.

“지금까지 죽음이 생명과 다른 것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죽음이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역설적으로 생명이 뭔지 몰랐는데 죽는 순간 생명이란 게 뭔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 죽음의 발견이 곧 생명의 발견이었던 거야. 태어나서 빛만 본 사람은 어둠을 모르는 게 아니라 빛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 암이야!’라고 선고 받는 순간 갑자기 공기 맛이 갈라지고 이제까지 보던 빛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사형수도 집행장에 갈 때 한 번은 땅을 한 번은 하늘을 쳐다보고 흙탕물이 있으면 피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깨달음은 죽음의 방식을 경험함으로써 생겨나곤 하는데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사실은 법학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났을 때 벌판

에서 강력한 벼락을 만나 죽음의 공포를 느껴 기도한 것이 “주님 저를 살려주소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하여 수도승이 되고 나중에 종교개혁까지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짜 지혜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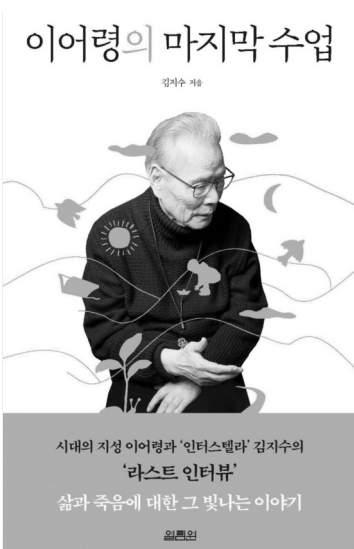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마치 선생님과 직접 인터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예전에 인터뷰할 때 선생님이 하용조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에게는 병이 없고 늘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서 순수한 목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임을 확인하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허원희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읽어보면 좋을 책

죽음, 생명, 탄생, 꿈, 사랑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저 | 열림원 | 1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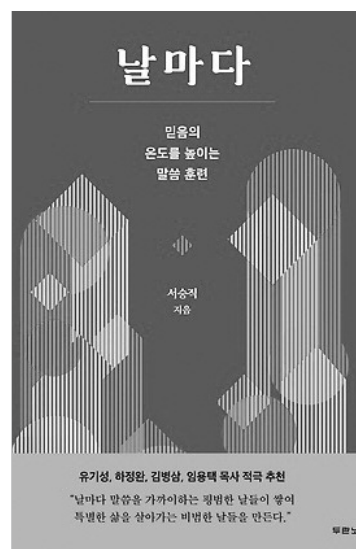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4월이다. 삶과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시대의 지성이자 영성이었던 이어령 박사가 소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은 인터뷰 전문 기자인 김지수 문화전문기자와 이어령 박사의 대화를 엮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읽으며 시대의 지성이자 영성이었던 이어령 박사가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들을 묵상한다면 더 의미 있는 4월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어령 박사는 “매일 밤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하며 깨달은 모든 것을 차근차근 풀어놓는다.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이해하겠나? 어둠의 팔뚝을 넘어트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죽음, 생명, 탄생, 꿈, 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드는 이어령 박사의 이야기가 진한 여운을 남긴다. 생명이 움트는 4월 이어령 박사의 마지막 수업을 듣자.

특별한 삶을 사는 방법



〈날마다〉
서승직 저 | 두란노 | 13,000원

성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분명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어제와 별 다르지 않은 믿음, 변화되지 않는 일상을 보며 낙망하기도 한다.

서승직 목사(새샘교회 담임)는 〈날마다〉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영적 성숙은 단번의 기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 변화를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1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직접 경험한 생생한 변화를 책 〈날마다〉에 담았다.

이 책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궁금한 새신자들을 위한 영적 지침서다. 더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생명주일에배 드린다!

4월 3일 오후 2시 중앙성결교회 본당

생명주일에배를 드린다. 4월 3일 (주일) 오후 2시 중앙성결교회(종로구 충신길22 소재) 본당에서 드린다. 생명주일에배에서는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사회를 보고, 전영범 형제 특순, 한기채 목사 설교, 중보기도 등이 이어진다. CGNTV는 생명주일에배 실황을 4월 3일 오후 7시 녹화 방송한다.

지난 3월 28일(월)부터 4월 1일

(토)까지 오전 6시 중앙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린 2022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회 ‘한결같은 주의 생명’이 막 내렸다. 이번 새벽기도회는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새벽 6시 새벽예배를 드리는 온누리교회 캠퍼스(서빙고, 부천, 수원, 강동)에서도 참가했다. 설교자의 메시지 영상을 송출 받아 상영했다.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3월 28일(월)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3월 29일(화)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 3월 30일(수) 이기복 목사(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 3월 31일(목) 함수연 회장(사단법인 프로라이프), 4월 1일(금) 박상은 원장(샘병원 미션), 4월 2일(토) 최형근 목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가 메시지를 전했다.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NGO 더멋진세상 ‘사바나 중학교’ 완공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NGO 더멋진 세상이 남아메리카 온두라스 사바나 마을에 ‘사바나 중학교’를 완공했다. 교실 3개, 교무실 1개, 화장실 (남, 여 각 2칸)로 구성되었다. 학생 49명이 3개 학급에서 공부할 예정이다.

사바나마을 전체 주민 2천명(209 가구) 중에서 어린이가 700여 명이나 되는데 중학교가 없었다.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사바나마을 주민들이 학교 부지를 매입했고, NGO 더멋진세상이 건축을 담당했다. 학교 운영은 온두라스 교육부가 한다.

와이무슬림 참가자 모집

4월 5일~5월 10일 매주 화 오후 8시

와이무슬림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3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와이무슬림은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 신앙체계의 발전과정, 이슬람

을 이해하고 전도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슬람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과정’,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이슬람의 예수 이해’, ‘한국의 이슬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557-8924

헬로맘 참가자 모집

4월 15일~5월 27일 매주 금 오전 10시 온라인

헬로맘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헬로맘은 ‘선택의 행로에 선, 리브가’, ‘비움에서 채움으로 인생이 변

한, 나옴과 룿’, ‘비전의 인생에서 영광의 인생으로, 라함’, ‘생명을 주는 화석류의 꽃, 에스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물려준, 로이스와 유니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2716-2736

온라인 세미나 ‘요엘 집중반’

‘소선지서의 닷’이라고 불리는 요엘서를 이해하고, 소선지서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돕는 ‘요엘 집중반’ 온라인 세미나가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된다.

박철현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구약학)가 강의한다. 회비는 9만 원. 4월 14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www.durannobiblecollage.com)에서 수강하면 된다.

문의: 02-2078-3266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모집

창조신앙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7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창조신앙스쿨은 창세기 및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말씀에 기초한 창조론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문의: 010-4658-0987

‘성혁명 기초를 흔들다’

온누리세계관학교 4월 19일, 26일 오후 8시

‘동성애는 왜 이슈가 되었을까? 성혁명의 목적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성교육을 받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답을 구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온누리세계관학교(OWA)에서 ‘성혁명 기초를 흔들다’를 주제로 4월 19일(화)과 26일(화) 오후 8시 온

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류현모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가 강의한다. 성혁명,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2-3215-3637

“새가족과 공동체가 만나는 기쁨”

3년 만에 열린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서빙고온누리교회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이하 서빙고 만남의 잔치)가 지난 3월 27일(주일) 오후 7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됐다. 이번 서빙고 만남의 잔치는 3년 만에 열려 더욱 뜻깊었다.

이번 서빙고 만남의 잔치는 오미희 권사(배우) 목사의 산책, 이재훈 담임목사 인사, 교역자 특순, 새가족 은혜나눔, 우리 공동체 소개, 축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영준 집사(김포공동체, 새가족사역팀)는 “새가족들이 공동체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새가족들을 직접 만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02-3215-3267

4월 화요성령집회 ‘하나님의 시간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4월 화요성령집회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4월 화요성령집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5월 최성민 목사 ‘기

적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간’ (요 2:1~10), 12월 김승수 목사 ‘이제는 깨어야 할 성장의 시간’ (롬 13:11~14), 19일 이서진 목사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반전의 시간’ (예 6:1~11), 26일 김승수 목사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의 시간’ (벧후 3:8~13)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4월 9일~6월 25일 매주 토 오전 10시 30분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은 레크리에이션, 미술, 놀이 등 예술 매체와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더욱 친밀해지도록 돕고,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회복프로그램이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떻게 어른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까?’ 등을 주제로 10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4월 16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한 명당 1만 원(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면 가정당 1만 원).

문의: 010-2647-5435

프리덤스쿨 참가자 모집

프리덤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프리덤스쿨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본모습을 회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자유와 구원의 능력’, ‘Original

Design의 개념’, ‘회개로 회복하는 신자의 권위’, ‘견고한 진과 이를 파쇄하는 4R기도’, ‘치유되어야 할 상한 감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4월 16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3896-2477

■ 세례 간증



/ 김영희 성도(이수공동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권유로 성당에 갔었다. 영세(가톨릭교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모든 죄악을 씻는다는 의미로 시행하는 의식)와 견진성사(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고 성령을 더 견고하게 받는 성사)를 받고 잠시 성당에 다녔다.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몇 번 성당에 갔다가 멀리했다. 누군가 신앙 여부를 물으면 성당에 다닌다고 말했다. 이따금 서울에 오면 전도하는 이들의 권유를 무시했다. 그런데 나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귀국했더니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친구들의 전도 방문을 받고 1년 뒤 직장을 그만두려고 연차 휴가를 썼을 때였다. 친구와 통화하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권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CGNTV로 새벽기도를 드리고, 90일 성경통독을 했다. 현재까지 예배와 함께 말씀을 읽고 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고, 세월을 아끼고 싶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설교 말씀과 찬양, 큐티, 성경공부,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온누리교회에 등록했

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 때때로 버겁기도 하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곤 한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곁에서 목을 길게 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깨금발로 동동거리고 계셨다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들리지 않았고, 듣고 싶지 않았다. 내 안에 있는 죄에 가려서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 죄, 이기심, 교만함, 불평과 불만 등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죄에 대한 값을 모두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다. 내가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불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이하늘, 박나라 선교사(말라위)

“다시 희망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섬기는 마을의 집 약 80여 채가 무너지고 유실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닥친 재난이 슬프지만 감사했던 것은 누구 하나 집을 잃은 것에 대해 크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주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필요 물품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는데 피해 가구 주민 대부분이 밝은 얼굴이라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태풍이 올 때면 으레 있는 일이고, 흠집이 나 보수하는 데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대책이 없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 정도로 태평해 보이고 긍정적인 이들의 모습에서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늘 걱정과 근심, 염려가 가득한데, 큰 재난 앞에서도 긍정적인 마을 주민들의 태도가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긴급구호 형식으로 주민들의 집을 보수할 때 쓰도록 비닐과 옥수수 한 팩을 지원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지원 물품을 받아 가는 주민들을 보면서 비록 태풍으로 집은 무너졌지만, 그 위에 다시 희망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 유치원은 주민들의 호평 속에 날로 발

전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형식으로 아이들을 맡겼던 학부모들이 변하는 유치원의 모습과 아이들 교육의 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의 추장과 위원회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 마을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매주 교사 교육으로 교사들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이 배울 것도 풍성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유치원 규모는 작는데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지난 기도 편지에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다고 말씀드렸던 이 선교사의 상태가 전보다 많이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금만 무리해서 일하거나 움직이면 통증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잔기침도 계속하고 있어서 건강에 더욱 신경쓰고 있습니다. 딸은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을 때가 많을 텐데 매일 아침 6시 “학교 가야지!” 하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특합니다. 우리 부부가 기도한 대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태풍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과 마을 유치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젊은부부학교 수료 소감



/ 신애리 성도(서초C공동체)

다시 새롭게 시작!

젊은부부학교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지만, 일단 어디든지 부부 사이에 도움이 될 만한 곳에 가보자는 마음이었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마음 한편에는 이곳에서 작은 전환점이라도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 시작한 젊은부부학교에서 참 많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다. 첫 주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던 수많은 섬김이 서서히 눈에 들어왔고, 다른 가정들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남편은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었다.

남편은 그동안 내게 “사랑이 많다”고 여러 번 말해왔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부모님께 건강한 사랑을 충족하게 받은 나는 ‘받은 사랑이 많으니 내 안에 사랑이 많다’는 교만한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내 안에 있던 사랑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이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 기억났다.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받은 대로 똑같이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젊은부부학교는 우리 부부에게 뜻밖의 큰 선물이었다. 우리 부부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신 조장님들의 사랑이 정말 감사했다. 그분들이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하며 흘리시던 눈물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뜨겁게 눈물로 찬양하며 강의 전 온전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분들도,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주님 섭리에 따라 쓰임 받으시는 강사님들의 지혜와 나눔도, 그리고 그 외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졌다. 젊은부부학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많이 부담되고 긴장되는 자리였을 텐데 마음을 열고 함께 진지하게 참여해준 남편에게도 감사하다. 젊은부부학교 과정이 끝나고 “다음에는 나도 젊은부부학교에서 봉사하고 싶다”면서 애정을 보이는 남편이 참 고맙고 사랑스럽다. 젊은부부학교와 함께한 4주가 끝난 게 참 아쉽다. 이곳에서 마련해준 디딤돌로 다시 제대로 시작하려 한다.

■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 김민아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창조는 역사적 사실이자 진리!

어느새 5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점점 침침해지는 시력으로 주일 오후 거의 절반 이상을 못 알아듣는 강의를 듣고 있는 내가 서글프고 웃기기도 했다.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어렵지만, 자꾸 듣다 보면 얻어지는 것이 하나는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달려왔다.

창조신앙아카데미 강의에서는 늘 주어진 강의 시간을 가득 채워서 하나라도 더 설명해주시려는 강사님들의 열정이 느껴졌다. 헌신적으로 모임을 이끌어가는 총무님의 섬김에도 감동했다. 그분들의 열정과 섬김이 나의 게으른 마음을 붙잡아서 강의에 집중하게 했다. 어려운 강의였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창조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창조신앙아카데미에 감사하다.

창조신앙아카데미 과정을 위해 읽었던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과학적 지식과 말씀이 더해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진리라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깨닫게 하셨다. 정말로 내가 창세기를 믿음으로 통과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었다.

창조신앙아카데미에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내 감정에 의지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게 되었다. 15년 전 창조과학회 소속 강사님에게 수많은 강의를 들었고, 지금까지 나의 창조신앙이 굳건하다고 생각해 왔기에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기까지 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아셨기에 창조신앙스쿨과 창조신앙아카데미까지 이끌어주신 것 같다.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부쩍 많아진 자녀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깊고 풍성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장로칼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병현 장로
(양지온누리교회)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길 때 나는 이미 선교사라는 사실이 발각됐다. B 지역에도 착했을 때 환대는 고사하고 호의적인 태도조차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나님이 아웃리치를 통해서 마을의 간질 환자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기적을 통해서 주민들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사역의 문이 열리고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전 같았으면 문전박대했을 텐데 학교 관계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안내해줬다. 사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선교지 주민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학교를 둘러봤더니 ‘애심원’이라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애심원이 무엇을 하는 데냐”고 물었더니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교사들이 돈을 모아 점심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했다. 아웃리치팀이 와서 애심원 사역을 함께 섬겼다. 아웃리치팀을 위해 학교를 소개하다 작은 공방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공방에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만든 작품들을 진열해 놓았는데 학생들의 손재주가 아주 괜찮았다. 그 손재주를 살려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학생들과 인형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저마다 인형의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리고 지역 박물관 구석에 인형들을 진열해줬다. 난리가 났다. 학생들이 만든 인형이 진열하기 무섭게 금방금방 팔렸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맛이 있어서

그런지 학업에도 더 열중할 수 있었다.

사역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B 지역에서는 방목을 많이 하는데 한번은 EM 비료를 가져다가 초원에다 뿌렸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났더니 초원에 풀들이 뻘뻘하게 고개를 들었다. 양들이 뻘뻘하게 자란 풀을 먹었고 양을 키우는 주민들이 정말 좋아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양들이 너무 잘 먹은 까닭에 지방이 얇아지고 근육이 많아졌다. B 지역에서는 양을 도축해서 지방을 주로 섭취하는데 살코기만 나왔다. 우스운 일을 한 셈이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덕분에 정부에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를 추방하려고 했던 경찰서에서 부지를 내어 줄 테니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공간을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쉽게도 은퇴를 앞두고 현지 사역을 정리해야 했다. 선교지 생활을 정리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다. 하루는 내가 떠난다고 했더니 고위 공산당원이 식사대접을 하겠다며 조선족 음식점으로 나를 초대했다. 식사하면서 공산당원이 1년 동안 비가 통 오지 않아서 양들이 먹을 풀이 말라 죽었다고 했다. 내가 “염려 말라”고 격려를 했더니 공산당원이 별척화를 냈다. 나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온다”고 호언장담했고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공산당원이 자리를 떠났다. 그 다음 날 새벽부터 3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 비가 멈추고 그 공산당원이 집에 찾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었다. 짐 싸서 떠나려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그 공산당원에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라며 성경책을 한 권 건네며 다음에 돌아오면 함께 성경을 읽자고 약속했다. 이 일이 선교지에서 나의 마지막 사역이다. 이 일화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이다. 때가 어렵다.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노국자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오랜 기도제목이 하나 있었다. 남편의 전도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전하러 부단히 노력했는데 남편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지칠 대로 지친 나는 어느 날 책상에 앉아 하나님께 편지를 썼다.

“하나님 아버지 제 걱정거리 아시죠? 남편이 5년만 살다가 죽겠다고 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남편과 45년 살면서 제 삶이 덕을 세우지 못해서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같아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 힘으로는 그 완고한 고집과 단단한 마음을 무너뜨리기 힘드네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세요.

저 역시 남편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세끼 식사는 꼭 챙겨주려고 애쓰는 것도 아시죠?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전도자, 중보자로 보내셨다면 남편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도록 해주세요. 주님을 선택하는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가 주님 낙원에 임할 때 기억해 달라고 한 것처럼 제 남편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가정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은 편지 한장을 쓰고 책 사이에 끼웠다. 그리고 15년이 지났다. 내 기억에서 그 편지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편지를 발견한 것은 2020년 8월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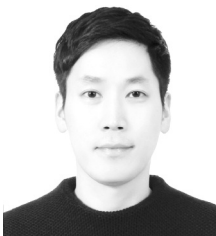
일 남편의 세례식을 마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에 책 사이에 있던 편지를 발견했다. 그 편지를 쓰고 몇 년 뒤 남편은 섬망증에 시달렸다. 방안에 귀신이 돌아다닌다며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했다. 공포에 가득 찬 남편은 침대맡에 부적을 붙여달라고 했다. 나는 남편에게 “부적보다 힘센 분이 있어”라며 예수님을 소개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던 남편이 예수님 이름을 침대맡에 붙여달라 했다.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주님이 사용하셨다. 그날 이후 남편은 귀신을 보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매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열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남편을 또 한번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 2020년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복드림콘서트였다. 남편에게 “TV로 교회 영상 하나 보자” 했더니 흔쾌히 승낙했다. 용기 내서 “이거 보면 세례도 받아야 해” 했더니 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행복드림콘서트에 참가하고 그 다음 달에 세례를 받았다.

책 사이에 끼워진 편지를 읽고 지난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왔다. 남편과 오랜 시간 갈등하며 얻어낸 결과이기에 내 힘이라고, 우연이라고 생각할 뻔했던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다. 오랜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신실하심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남편은 저녁마다 “90살 살아오면서 죄 많이 지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회개한다. ‘예수 사랑하심’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 나가기를 소망한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는다.

신앙에세이

장동원 목사
(찬양사역공동체)

약 6년 전 일이다. 일산 기독교 묘지가 택지개발로 인해 공원묘지 전체가 이장(移葬) 대상이 되었다. 그곳은 내가 태어나기 한 달 전부터 아버지가 줄곧 안치되어 계신 곳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 산소에 갈 때면 어머니는 수많은 무덤 중에서 아빠 무덤이 어떤 것인지 직접 찾아보라고 하셨다. 다행스럽게도 아버지 묘소 앞에는 작은 상수리 나무 뿌리가 남아있어서 똑같이 생긴 묘소 중에서 실수하지 않고 찾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병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정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직접 본 적

이 없고 남아있는 사진이나 기도문 육성녹음 테이프, 가족과 아버지 지인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상상한 것이 다였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묘지를 다른 곳에 수목장하기로 했다. 이장하는 날 5명 정도의 인부들과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 파묘를 하고 유골을 수습해야 하는데 인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좋은 관을 썼는지 시신이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분이 “여기 와서 이것을 보세요!”라고 외쳤다. “35년 정도 된 시신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정말로 아버지의 머리, 어깨, 허리, 다리까지 수의에 싸여 형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다. 인부들은 유골을 수습할 필요가 없다며 그대로 다른 관에 옮겨 모셔가는 일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때 내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나에게도 정말 아빠가

있었구나!’

처음으로 느꼈다. 말로만 듣던 아빠를 봤다. 비록 시신이었지만 정말 내게도 아빠가 있다는 게 느껴져 눈물이 났다. 그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들한테 장례를 받으려고 아직까지 기다리셨네요.”

당연히 틀린 말이다.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앞으로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잊는다고 해도 나는 절대 너를 잊을 수 없다.”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깝게 다가오셨다. 이렇게 강하게 내 마음을 두드리신 것은 드문 일이었다.

수목장을 해야 하기에 아버지 시신을 화장했다. 나는 어머니 태중에 있었기에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한 번 더 아버지 장례

를 치르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화장이 다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 내 품에 안았다. 뜨거운 유골함이 내 마음을 녹였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뜨겁게 타들어 가는 초의 심지처럼 너를 원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을 태우는 것 같았다.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너무 좋은 유산을 남기셨다. 신앙의 유산이다. 매일 회사일을 마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셨던 아버지. 앞으로 만나게 될 나를 생각하며 기도하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기도가 여전히 내게 유효하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신다. 세상과 사람은 다 변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세상의 친구인가 하나님의 친구인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영혼은 반드시 겸손합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벧전 5:5-6).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비슷한 시기 사도들이 강조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교회 성도들과 흠어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강조했던 교회의 영적 표어와도 같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영혼은 결코 하나님의 친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만은 순수한 영적 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들은 사탄이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지만, 교만은 순수한 영적인 악이기 때문에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유명한 고전 〈겸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는 죽음이 겸손의 완전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꽃에서 맺히는 완전한 열매입니다.”

겸손의 본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 겸손을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

막 단계에 이를 때까지 방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영혼에 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

셋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11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 행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때 반드시 서로에 대한 비방과 판단,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최후의 심판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행하는 판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최악의 경우로 추정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욕에게 그랬습니다. 사탄이 욕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고소했습니까? “욕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축복을 앗아가면 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욕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기를 최악으로 추정하는 것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방법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적입니다. 자신의 무거운 죄는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들추어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의 친구로서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판

단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12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류와 위선과 악의와 편견 없이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십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이 에덴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초청을 받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동행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외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속하시고

“이제 너희는 내 친구”라고 초청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교만, 판단이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정결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로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하는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상울 장로
(사회선교부
한누리사역)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 탈북민을 섬기는 ‘한누리사역’이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성도님들께 한누리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탈북민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통일의 마중물’로 보내주신 탈북민들과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

가 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에는 매년 한누리 연합예배를 드렸다. 2019년에는 남한산성 묵상의집에서 서빙고 한터공동체, 양재 하나공동체, 부천 한사랑공동체, 대전 한누리공동체, 남양주 복사랑공동체 사역자와 자원봉사자 25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와 공동체별 장기자랑을 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알아가고 축복하는 시간이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예배와 나눔이 재개되기를 소망한다.

한누리사역에서는 연합예배와 함께 해외 아

웃리지도 간다. 러브소나타 시즈오카에는 남북한 성도 40여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섬겼다. 섬김 받는 것이 익숙한 탈북민 성도들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다. 팬데믹이 끝나고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어느 탈북민의 간증처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평생 적(敵)으로 배우고 증오했던 미국 땅을 밟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이뤄지기를 기도한다.

탈북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녀 교육 문제다. 탈북민 부모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경쟁의 극한을 달리는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서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문제야말로 가장 큰 어려움일 수밖에 없다. 한누리사역에서는 방과후교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탈북민 아이들을 양육한다. 탈북민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방과후교실을 찾아오는 이유는 사역자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생이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탈북민 청년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남자는 행촌동 요셉하우스(4명), 여자는 논현동 예

스터하우스(5명)를 운영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기숙사 입소 기회가 주어진다. 주위 많은 교회들이 온누리교회니까 가능하다는 부러움과 온누리교회답다는 칭찬을 하고 있다.

한누리사역에서는 탈북민 여성의 신앙과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여성사역을 하고 있다. 여성들이 어린 자녀를 방과후교실에 맡기고 양초나 비누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서 재정적 도움을 받도록 했다. 최근에는 네일아트 전문가 선생님의 자원봉사로 무료 네일아트 국가고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역 또한 소속 교회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열리는 프로그램이어서 타 교회와 기관에서 좋은 반응을 하고 있다.

중국 내 탈북민 지원사역도 한다. 현재 중국 오지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탈북민 자매들에게 탈북민 출신 선교사들이 말씀과 재정적 후원을 하고 있다. 현재 30만 명 이상의 탈북민 자매들이 인신매매로 중국 각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오지의 농장에서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임신한 자매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

요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한누리 사역팀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직접 중국으로 찾아가 몇 명의 자매들을 만나고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곤궁한 삶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을 통한 후원과 관심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면 감사하는 자매님들의 고백에 부족했던 우리의 섬김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다.

최근 선교사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양육한다’는 의미의 양양교회 두 곳을 개척하셨다. 중국 내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자 하는 양양교회의 소망이 잘 이뤄지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

존경하는 선배 장로님의 추천으로 탈북민 대학생 진로강의로 시작된 나의 탈북민 섬김이 벌써 7년째 되어간다. 아직도 탈북민과 그들의 아픔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포기할 수 없는 영혼 탈북민들과 잊히면 안 될 복한을 위해 부족하나마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문의: 02-3463-9686

포기할 수 없는 탈북민, 잊히면 안 될 북한

개국특집다큐

더 위대한 사역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故 최원일 선교사, 아내 조유진 선교사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역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방송

1편 4월 3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2편 4월 10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다시보기 : '풍당' 앱, CGNTV 웹사이트(www.cgntv.net)

내레이션

배우 양준모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